

### **당시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무분별한 신앙으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었다. 이 신앙인들의 위기는 내적, 외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적인 위협으로는 교회 내에 이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니콜라오스파(2,6 참조)는 신앙의 전통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2,14 참조). 다른 내적인 위협으로는 아시아 공동체가 종교적 생활이 이완되면서 사랑의 행위가 식고(3,2 참조) 처음에 가졌던 그 열성을 잃어가는 것(2,4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외적인 위협으로는 2장 8-10절에서 나타나듯이 유대인들의 적개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라고 할 수 있다. 묵시록 6장 9-11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미 네로에서부터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17장 6절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박해는 로마의 화재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황제 개인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박해는 계속 있었다. 묵시록이 쓰일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크고 참혹한 박해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 이 박해는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 **‘666’의 의미**

13장 18절의 이 숫자의 의미는 요즘 그리스도교 신종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분은 묵시록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숫자를 사용하여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글자가 따로 없었고 숫자를 사용하여 글자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묵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홀수가 셋이 모인 이 ‘666’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최대 원수, 즉 모든 악과 그 화신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666’을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한다. 한편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인 7에 하나를 합한, 가장 완전한 수인 ‘888’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 **144,000명의 의미**

묵시록 7장과 14장에 144,000명의 선택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숫자는 12×12×1,000으로서 처음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나중의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1,000은 하느님께 속한 무한한 숫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144,000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효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같은 교파에서 이 숫자를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한정적인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맞은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 **묵시록에 나타난 사탄은...**

요한묵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빛의 나라는, 늪은 뱀이며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용의 나라와 대치를 이룬다. 그리고 이 대치 속에서 사탄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12,9).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다 실  
패한 사탄은(12,6),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움을 계속 한다(12,7). 사탄은 지상의 부정적인 세력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힘으로 교회에 대항하여 싸움을 한다.

이처럼 묵시록에서의 사탄은,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인류의 원조를  
타락으로 이끌어 들였듯이 현세적인 여러 형태로 나타나 신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사탄의 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에는  
못 미치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패배를 볼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주님께  
대한 항구한 사랑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 **묵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심판’**

저자의 최대관심사인 이 책을 쓴 목적은 마지막 심판인 동시에 종말의 구원이다.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마지막 시기에 대한 임박한 날짜는 땅을 파괴하는 이들의 파멸의  
시간이며(11,18),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는 구원의 시간(7,1-8 ; 11,1-2)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날에 이루어진다고 믿었다(6,17 ; 16,14). 바로 이날, 악마의  
세력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간의 전쟁은 극에 달할 것이며 결국 마귀(12,17)와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11,18) 하나님의 분노에 의하여 멸망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러주실 것이며(19,2)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선언해주실 것  
이다(18,20). 즉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겪고 있었던 고통의 끝을 의미한다.

### **요한묵시록을 대하는 자세**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그날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날이 언제 오든 간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이들이다. 요한 묵시록은 이런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 될 것이다.